

전국 동네슈퍼 최대 50% 할인

'소상공인 축제 주간' 28일까지 90여 개 상품 대상… 이발소·꽃집 등 1만여 점포도 해당

전국 2900여 개 동네 슈퍼가 오는 28일까지라면, 즉석밥 등 90여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는 제2회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슈퍼마켓, 이발소, 꽃집, 목욕탕, 컴퓨터판매점, 주유소, 학원 등에서 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전국 1만여개 소상공인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업종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네이버에

서 '소상공인 축제'를 검색하면된다. 네이버 상단의 '소상공인 주간 배너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축제 개막에 앞서 사전 행사 홍보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삶의 현장'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도 개최된다.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 등 SNS 이벤트와 참여기록을 방문하고 찍은

인증샷을 행사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3000여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서울 역 광장에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직접 생산한 계란·제과·핸드크림 등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

전주시-공인중개사협 기업유치 관련 부동산 정보제공 협약

협회 추천 중개사 5명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 위촉

전주시가 기업유치 관련 부동산 정보제공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전주시는 22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재수 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에이전트와 기업유치 관련 부동산 정보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주시가 오는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팔복동 친환경복합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완공에 앞서 전주지역 일반부지 토지정보를 부동산 전문에이전트로부터 제공받아 부자기업에 맞는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전라북도 공인중개사협회가 추천한 공인중개사 5명(원내)을 임기 2년의 전주시 기업유치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된 부동산 전문에이전트는 임기 중 공장유치가 가능한 일정규모의 토지정보를 전주시에 제공하고 부자기업이 공장부지에 대한 전문정보 및 상담 등을 의뢰할 경우 성실히 에이전트 수행으로 공장 부지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9월 김제시, 원주시와 함께 발족한 전주광역권 공동기 업유치단 활동을 본격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전주광역권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시는 부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15억



기업유치를 위한 전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 부동산 정보제공 협약 체결식이 22일 전북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 박재수 지부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의 부자진흥기금으로 전주광역권으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부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게 투자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구 내 기업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유도와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10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만큼 기금운용본부 관련 핵심 금융기관 유치에도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회적경제 등 전주형 독립경제 실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유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 운영과 전주광역권 공동부자유치단 운영 등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
'119수호천사' 집중 양성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용소방대원 30명을 대상으로 119수호천사 양성교육을 실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의 업무 협조로 이뤄진 이날 교육에서 70점 이상득점한 대원들에게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을 발급, 합격한 119수호천사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보급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구창덕 소방행정과장은 "이번 119수호천사 양성교육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119수호천사라는 이름에 도민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노영 기자



전주시 완산구, 깨끗한 거리 조성 총력

권역별 단속반 편성 운영 등

분양광고, 신학기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성을 가장한 홍보 현수막 및 사전협의 없는 공공기관 현수막까지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완산구는 불법광고물 사각지대인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중심으로 정비에 집중, 지난 17일에는 완산구 일부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 불법광고(현수막 124건, 벽보 360장)을 제거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정차 치문에 대해서도 단속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한들초등학교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등하교시간 대 불법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2배 인상된 8만원이 적용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청렴도 3계단 '껑충'

권위 평가 5등급→2등급

월 실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전주시는 8.17점의 종합청렴도 점수를 획득, 1년 전보다 28계단이나 상승한 4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에 대한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주시는 전년도보다 35.5점이 상승한 85.6점의 종합점수를 획득해 지난해 5등급에서 3등계가 수직 상승한 2등급(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